



## ▲아내의 매력

아내가 남편을 보며 물었다.  
“당신은 내 모습 중 어디가 가장 좋아? 예쁜 얼굴이아니라면 잘 빠진 몸매야?”  
아내의 질문을 받은 남편은 찬찬히 아내의 미리부터 발글까지 살펴 본 뒤 대답했다.  
“응 당신의 유머 감각.”  
▲여자가 사는 재미  
두 남·녀가 맞선 자리에서 만났다. 남자가 여자에게 물었다.  
“혹시 담배 피우시나요?”  
여자가 헌장을 펼면서 말했다.  
“어머, 저 그런 건 못 피워요.”  
“그리면 술은 어때십니까?”  
“어머, 저 그런 건 입에도 못 대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애는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연애요? 전 아직까지 남자의 ‘남’자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미소를 지으면 다시 물었다.  
“정말 순진하시군요. 저야 솔직히 반갑긴 하지만... 그럼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호호호,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아요.”

## ▲노동의 의미

사무실에서 부장과 다른 부서의 부장이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부장의 친구가 먼저 말했다.  
“밤에 하는 그거는 노동이야. 그야말로 아내를 위한 봉사지!”  
그러자 부장이 맞장구를 치면 말했다.  
“맞아! 그거야 말로 중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참으로 희생적이야. 가정을 위해 이런 노동도 서슴지 않고.”

한참 얘기를 하던 부장이 옆에 앉아있던 젊은 사원에게 물었다.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아 예~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젊은 사원은 조용히 사무실을 나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게 노동이면 니들이 하겠나? 당근 날 시기지...”

## ▲엄마의 한 마디

엄마와 백수 아들이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TV에는 한 도예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도예가가 실패한 도자기를 차치없이 깨버리는 것을 진지하게 보면 엄마가 아들을 힐끔 돌아보면서 중얼거렸다.  
“부럽네. 실패작을 저렇게 간단하게 처분할 수 있다니!”

## ▲선생님의 건망증

건망증이 무척 심한 선생님이 있었다.  
어느 날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서서야 자신이

출석부를 깜빡 잊고 가지고 오지 않은 걸 알았다. 선생님이 반장을 찾으며 말했다.

“반장, 교무실에 가서 출석부 좀 가져와.”  
반장이 교무실로 간 사이 선생님이 교실을 둘러보며 한 마디 했다.

“이 반에는 반장도 없나! 왜 인사를 안해?”  
당황한 학생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반장이 출석부를 들고 교실로 들어왔다.

이를 본 선생님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넌 뭐야, 도대체 어디 갔다 이제 와?”

## ▲글짓기 대회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글짓기 대회가 열렸다. 글 짓기의 주제는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었다.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작품이 있었다. 단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작품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만일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나는 지금 여기 이 글짓기 대회에 앉아있지 않을 것이다.”

## 시끌벅적 e-스타



## 멜라민 걱정없이 먹는 술빵 만들기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했는데, 요즘 먹을거리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미국발 쇠고기 파동에 이어 중국발 멜라민 파동으로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잊혀질 만하면 나오면 불량 식품들 때문에 주부들의 눈과 손이 바빠졌다.

음식 하나를 사면서도 꼼꼼히 식품 성분을 찾아 봐야 하고, 애들 간식거리까지 직접 만들어 먹어야 할 형국이나 멜라민 걱정 없이 먹는 술빵 만들기라는 동영상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는 간단하게 술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동영상으로 등장해 네 티즌의 주목을 끌고 있다. 재료와 만드는 법도 간단하다.

밀가루(강력분) 250g, 설탕 2큰술, 소금 1작은술, 생이스트 3g, 올리브유 1큰술, 호두, 견포도 그리고 술빵의 핵심 막걸리 200g이 필요하다.

막걸리를 살짝 데운 다음 설탕·이스트·밀가루·올리브유·소금을 넣고 표면이 메끈메끈해질 때까지 반죽을 하는 게 첫 단계. 그릇에 담긴 반죽을 랩으로 싸서 상온에 1시간 정도 놓고 발효 시킨다. 이때 반죽이 숨 쉴 수 있도록 숨 구멍을 뚫어 주는 걸 잊지 말자. 발효가 끝난 반죽은 다시 조밀조밀 주물러가며 가스를 뿐준다.

맛깔스런 술빵을 위해서 2차 발효가 필요하다. 종이컵에 반죽을 끌고루 나눈 뒤 랩으로 싸서 20분간 상온에 둔다. 그리고 준비해 놓은 호두와 견포도를 반죽 위에 송송 뿌려 놓으면 반죽 과정은 모두 끝이 난다.

준비된 재료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찜통에 놓고 25~30분간 끓여 쪄주면 된다. 젓가락으로 반죽을 떠보았을 때 반죽이 물어나지 않으면 ‘엄마표’ 건강 술빵이 완성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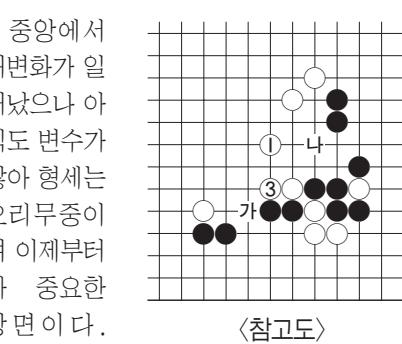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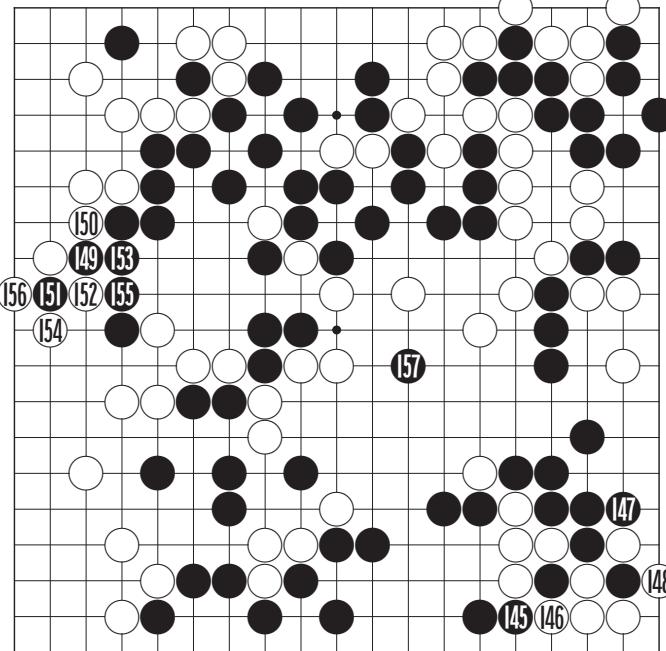
제2회  
광주바둑협회장배

## 아마최강부 결승

## 선수를 잡기 위한 공방

개인전 준결승 10보(145~157)

白 신계성 6단 黑 심재욱 6단



중앙에서 대변화가 일어났으나 아직도 변수가 많아 형세는 오리무중이며 이제부터가 중요한 장면이다. 뒷줄기에서가 중요합니다. 심재욱 6단은 흑 149로 좌변을 붙여 갔는데 이곳은 백이 155로 두어 흑 한점을 잡는 수를 끝으로 밀어 ‘기’와 ‘나’를 막보아 백 유리의 국면이었다. 이렇게 되면 중앙에는 오히려 백집이 불을 가능성이 있다. 금소를 얻어맞은 선 6단의 고심하고 있는 장면이다.

신계성 6단이 선수를 잡기 위해 150에 두었을 때 흑 151로 되꽂힌 수가 심재욱 6단의 재치를 보여준 수로 좋은 수였다. 이 수의 효과로 아슬아슬하게 선수를 뽑아 157로 중앙의 급소에 일격을 가해서는 형세를 흔든 상태로 물어넣는데 성공했다.

사실 백 150은 순따라 둔 수로 이 수로는 ‘참고도’의 백 1로 중앙을 보강하는 것이 좋았다. 흑이 계속해서 좌변을 두면 3으로 밀어 ‘기’와 ‘나’를 막보아 백 유리의 국면이었다. 이렇게 되면 중앙에는 오히려 백집이 불을 가능성이 있다. 금소를 얻어맞은 선 6단의 고심하고 있는 장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RESORT SISAK 웨도라도리조트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9일(음 9월 11일 향주)

**子** 36년생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48년생 도회기가 재활하면 명신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60년생 흥분은 금물이니 친구하고 행운의 숫자: 02, 32

**丑** 37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니 전후좌우를 살펴 가라. 49년생 예상치 못했던 실물수가 있으니 주의하라. 61년생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라. 73년생 재물과 건강에 시달림이 있을 수 있다. 85년생 불운이면 송차에 휘말린다. 행운의 숫자: 23, 44

**寅** 38년생 식구들의 건강을 살펴볼 때다. 50년생 직업과 돈, 남편과의 깊지도 조심하라. 62년생 무리한 변화는 잘못이 따르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라. 74년생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라. 행운의 숫자: 01, 31

**卯** 39년생 주변의 변화로 재물이 생길 수도 있다. 51년생 건강을 위해 노력하라. 63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니 자만은 하지마라. 75년생 소신껏 행동하라. 행운의 숫자: 18, 43

**辰** 40년생 제사에 신중하고 육심을 버려라. 52년생 협조자가 나오나 조심심 있게 판단하라. 64년생 누명 구설 등으로 불순한 일이 괴롭힐 수 있다. 76년생 부부간의 이해가 부족하니 대화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04, 45

**巳** 41년생 좋은 일과 연결될 기회가 생긴다. 53년생 인생은 지금부터, 멋을 아는 시기이니 행동하라. 65년생 깔보다 흥이 더 많으니 매사에 신중하라. 77년생 기상천외한 환재수가 있고 노령에 비해 대가가 증가된다. 행운의 숫자: 16, 35

**午** 42년생 슬픔과 기쁨이 같이 나타나지만 끝내는 기쁨이다. 54년생 아부지가 있거나 결과는 좋지는 않다. 66년생 아래 사람과 금전거래는 절대로 하지마라. 78년생 애인과 디툼은 있으나 원인은 사소한 것이다. 행운의 숫자: 16, 20

**未** 43년생 작은 것은 내주고 귀중한 것을 취하라. 55년생 일실일득,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버리는구나. 67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지만 마무리는 자신이 하라. 79년생 자녀교육이 중요하니 자식을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24,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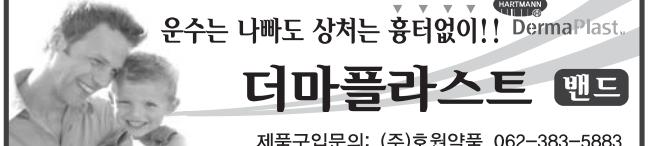
**申** 44년생 자기자랑보다 통보를 친화하면 곧은 계기로 온다. 56년생 생 상황에 따라서 시비 도난 분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68년생 뜻하지 않아 데려온 딸을 사태에 지혜롭게 대처하라. 80년생 이성의 만남이 있다. 행운의 숫자: 10, 28

**酉** 45년생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 57년생 나에게 불편한 일은 모두가 내 덮으로 생각하라. 69년생 제일 편한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다. 81년생 공출에 병이 따르니 피하는 게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22, 26

**戌** 46년생 가족과 떨어져 살 수도 있다. 58년생 아무리 부부사이라도 예의를 지키면 사랑은 두 배로 되리라. 70년생 배우자 덕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자신의 노력 부족이다. 82년생 새로운 인생을 설계 할 때 빠져나온다. 행운의 숫자: 13, 43

**亥** 47년생 많은 지출이 발생하나 투자로 생각하라. 59년생 부모 체의 노동이 있고 새 생활이 시작된다. 71년생 작은 일도 훨씬의 각오로 추진하라. 83년생 소란대질 육심을 버리는 품에게 여신은 미소를 보낸다. 행운의 숫자: 19, 42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제품구입문의: (주)효원약품 062-383-5883

## 굿모닝 잉글리쉬 &lt;1163&gt;

## 오하요우 니혼고 &lt;1163&gt;

## 니하오 층구워 &lt;240&gt;

## 한자 이야기 &lt;880&gt;

what's John's problem?

존한테 무슨 문제 있어?

A: What's John's problem?  
B: He got the room all dirty and then complained about having to clean up the mess.  
A: He should know better by now.  
B: I would think so.

A: 존한테 무슨 문제 있어?  
B: 그 사람은 방을 더럽히고서, 어지러워진 것을 치워야 하는 것에 대해 투덜대거든.  
A: 지금쯤은 철이 들어야 할 텐데.  
B: 나도 동감이야.

\* dirty: 더러운  
\* complain about ~ = ~에 대해서 투덜대다.  
\* clean up = 말끔히 치우다  
\* by now = 지금쯤은

東京(とうきょう)では雨が降りましたか?

도쿄에는 비가 내렸습니까?

我要兩塊糖。

wǒ yào liǎng kuài tāng

A:還要什么?

hái yào shénme

B:還要兩塊蛋糕。

hái yào liǎng kuài dàn gāo

A: 무엇을 원하십니까?

B: 나는 두 개의 사탕을 원합니다.

A: 다를 건요?

B: 헤이 그 두 개도 주세요.

块 [kuà] (양) 네어리, 개

糖 [tāng] 사탕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裝蠶作啞 (장룡작아)  
꾸밀 장, 귀머거리 통, 지를 작, 벙어리 아  
장룡작아(裝蠶作啞)는 귀머거리인 척 벙어리인 척한다는 뜻으로,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것을 비유한다.  
당나라는 현종(玄宗)때 일어난 안록산(安祿山)의 난으로 거의 궐궐상태에 빠졌다. 이런 혼란을 수습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곽자(郭子儀)였다. 대종(太宗)은 곽자의 아들에게 땅 공주를 맡겨주면서 “우리 아버지가 안록산을 물리쳤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가 황제 자리에 있는 거야. 아버지가 마음만 먹었다면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오를 수도 있었어.”라고 하였다. 이 말에 공주는 벌써에서 대종에게 남편이 반역한다고 일러버렸다. 하지만 대종은 딸의 이야기를 듣고 “애야 네 남편의 딸은 모두 사설이다.”라고 하면서, 싸우지 말고 잘 살라고 말을 타일렀다. 이 일을 전해들은 곽자는 급히 아들을 불잡아 가두고 황제에게 알현하여 사죄하였다. 그러나 대종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 노인들은 그런 얘길 들으면 속담대로 귀머거리, 벙어리가 되어 뜻들은 척해야지.” 하였다. 피를 불러울 뻔한 일이 아주 사소한 헤프닝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